

‘지뢰밭’ 새정치…‘9월 위기설’ 현실화하나

공천 혁신안 싸고 당내 주류-비주류 ‘전운’ 고조 안철수 “당 혁신안은 실패”…천정배 신당 속도

새정치민주연합의 ‘9월 위기설’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공천 혁신안을 둘러싸고 주류-비주류의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 당 밖에서는 ‘천정배 신당’이 속도를 내며 분열의 원심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혁신 성과를 놓고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주류와 혁신위원회가 같은 진영에 서고 있다. 반면, 비주류 진영에서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혁신작업이 실패했다”며 선봉에 서고 이종걸 원내대표, 김한길 전 공동대표,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이 자원사격에 나서면서 주류 진영과 각을 세우고 있다.

안 전 대표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 혁신과 관련, “낡은 진보나 당 부패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결별하는 것이 ‘육참골단(肉斬骨斷)’의 혁신”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공멸할 것”이라고 지도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내부 부조리와 폐쇄적 문화, 패권주의 리더십이 당을 지배해왔다”면서 “순혈주의와 배타주의, 진영 논리로 당의 민주성, 개방성, 확장성을 가로막으며 기득권을 공고히 해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 등 비주류 진영에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 분당의 수순 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문 대표 등 주류 진영에서는 비주류의 잇따른 비판을 ‘지도부 흔들기’로 규정하며 사실상 정면승부에 나선데 이어 혁신위에서도 비주류에 각을 세우고 있다. 주류 진영에서는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며 오는

16일 중앙위원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공천 혁신안을 의결, 당내 논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밖에서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신당을 구제화 하고 있다. 천 의원 측은 이번 주에 신당 추진 일정 등 로드맵을 마련한 뒤 가급적 이달 내에 창당준비위를 꾸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신한 정치신인을 중심으로 창당 작업에 들어간 뒤 ‘개문발자’ 형태로 세력을 모아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안 의결을 위해 소집한

16일 중앙위원회 회의가 새정치연합의 앞길을 결정할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부결될 경우 이는 곧 ‘문재인 체제’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과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주류는 혁신안 평가를 위한 별도의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결전에 대비한 여론몰이와 세 걸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중앙위 세력 구도상, 비주류의 걸집이 이뤄진다고 해도 혁신안 의결을 막기는 역부족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를 반영하듯, 주류는 중앙위의 혁신안 의결을 문 대표의 주도권 회복을 위한 전기로 삼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혁신안 의결을

낙관하는 가운데 압도적 지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분위기다. 중앙위 투표 결과, 혁신안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을 경우, 결국 내부 분열로 이어지면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류 진영에서는 혁신안이 통과 되는대로 당을 총선체제로 전환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천실무기획단에 이어 이달 내에 중 총선정책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다음 달 총선준비를 총괄할 총선기획단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오는 20일까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인선을 완료, 본격적으로 현역 국회의원 평가 작업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 “낡은 진보·당 부패와 결별해야 혁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당의 혁신안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룰’ 돌파구 찾나

정개특위 오늘 소위…비례대표제·오픈 프라이머리 등 재논의

이번 주부터 국회 안팎에서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진다. 지난달 여야 간 입장차이로 총선 룰 결정에 대한 결실을 맺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국회 내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7일 소위를 열어 선거제도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동시에 국회 밖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자체적으로 선거구 획정기준을 정해 7일부터 조 정대상 지역구에서 실사작업에 착수한다. 특히 선거구획정위의 김대년 위원장

은 6일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범정시한(10월13일)에 맞춰 단일 획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애초 정개특위가 지난달 13일까지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넘기면, 이를 토대로 획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개특위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획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정개특위에서 언제든 획정기준을 정하면 곧바로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개특위도 이번 주부터 본격 재가

동된다. 정개특위는 오는 7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선거구 획정기준, 지역구·비례 의석비율 등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급주부터 국회 안팎에서 총선룰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여야가 절충점을 도출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간 비율,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이 여전한 데다가 최근에는 여야 놓여촌지역구 의원들이 ‘지역대표성’을 획정기준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여야간 협상이 더 꼬이게 됐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감 10일 ‘스타트’

여야, 정국 주도권 놓고 22일 열전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다는 정치적 의미가 더해져 여야간은 물론 의원들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오는 9월10~23일, 10월1~8일까지 ‘전·후반’으로 나눠 실시된다. 또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열리는 만큼 추석 민심을 점령하기 위한 기 싸움도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현재까지 결정된 피감 기관수도 779개(정보위 제외 15개 상임위 의결기관 708개, 본회의 의결 기관 71개)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박지경기자 jkpark@



전남 도시가스 공급중단 증가율 전국 최고

주승용 의원

전남의 도시가스 공급중단 증가율이 지난해 전국 최고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6일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가스 체납 및 공급중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도시가스 공급중단 건수는 모두 2144건으로 2013년 693건보다 3.1배(1451건) 급증했다.

반면 전국 도시가스 공급중단 건수는 지난 2013년 4만9684건에서 지난



해 4만8538건으로 1146건 감소했다. 전남지역 도시가스 체납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은 2013년 8996건에서 지난해 2만6853건으로 1만7857건(3배) 늘었다. 이는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제주는 2013년 210건에서 721건으로 3.4배(511건) 증가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 자영업자 소득 전국 최하위권

황주홍 새정치의원

전남지역 자영업자 1인당 소득이 지난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영암·강진) 의원이 6일 국정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2013년~지난해 귀속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는 모두 10만2778명으로 연간 총소득은 2조1978억 원, 1인당 평균 소득은 2140만 원이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 204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



으로, 서울 1인당 평균 소득 4020만 원의 53.2%에 불과한 수준이다.

광주는 2340만 원으로 전국에서 9위이며 전국 평균 소득은 2940만 원이다. 광주·전남지역의 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셈이다. 특히 전남은 1인당 평균 소득이 2013년 2160만 원보다 오히려 20만 원 가량 줄었다. 반면, 광주는 1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92%가 낙하산”

박혜자 새정치의원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상임감사 중 12명이 새누리당을 비롯한 친정권의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광주 서구 을) 의원이 6일 전국 13개 국립대 병원에서부터 제출받은 ‘상임감사 임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명의 상임감사 중 무려 12명이 낙하산 인사였다. 이 가운데 10명은 새누리당을 비롯한 친정권 인사였다.

국립대 병원 13명의 상임감사 중 전남대 병원을 비롯한 충북대·충남대·전북대·강원대·경북대·경상대·제주대 병원 및 부산대 치과병원 상임감사는 모두 새누리당 출신 인사였으며, 부산대 병원은 이명박 정부 사회통합위원 출신 인사였다. 또한 서울대 병



원과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상임감사는 교육부 관료 출신이었다.

지난 6월 임명된 양화영 전남대 병원 상임감사는 새누리당 목포시 당협위원장이었다. 역대 연봉을 받으며 국립대 병원이 공직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상임감사라는 직위가 전문성과 관계없이 친 정부 낙하산 인사의 집합소로 전락한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한 공공기관 개혁의 실체가 ‘친여·친정권 인사 자리 찾기’였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 상

1.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철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2등 - 리류 스타일러(1명)

* 3등 - 아이패드(3명)

* 4등 - 족욕기(10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자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